

<2012년 7월 18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 같은 차이이고, 행한 것과 행하지 않은 것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 같은 차이이다.
2. 하나님도 성자 주님도 무엇을 주실 때는 먼저 깨닫게 하신다. 알려 주신다. 고로 깨닫고 알고 행함으로 얻는 것이다.
3. 전능자 하나님과 성자 주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도우셔도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자라도 모른다. 오직 깨닫는 자만 안다.
4. 사람은 보이니, 사람이 도와주면 금방 안다. 신은 안 보이니, 신이 도와주셔도 그 행함을 모른다.
5.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은 도우실 때 그 사람만 깨닫게 하며 도우신다. 그리고 사람이 행할 때 지혜와 지식으로 도우신다.
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은 사명자에게만 역사하여 하게 하신다.
7. 신은 ‘생각’을 도우신다.
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이 도운 자는 깨달아 행하고, 돕지 않은 자는 못 깨달아 행하지 못한다.
9. 신과 인간의 차이는 수만 가지가 있다.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수만 가지의 차이를 만든다.
10.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은 악인에게는 알려주지 않으시고, 의인에게만 알려주어 깨닫고 행하게 하신다.

11. 같은 세상에 사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가르쳐 주어 깨닫게 하시니, 그만 사망을 벗어나고 잘되는 것이다.

12. 하나님을 섬기고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나 악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게 하신다.

13. 악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게 하고, 의인들에게는 심령의 눈과 생각의 눈과 마음의 눈을 떠서 지혜롭게 보이게 하여 행하게 하신다.

14. 악인들에게는 그 행위대로 싫어하는 마음 그대로 두시고, 사랑하는 의인들에게는 사랑함으로 인하여 달리 보게 하여 행하게 하신다.

15. 의인들에게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깨달음의 손’에다 축복을 주신다. (고로 깨달아 행하여 얻게 하신다.)

16. 전능자의 축복은 ‘뇌’로 받으니, 받는 자 외에는 모른다.

17.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 예수님도 ‘생각의 손, 마음의 손, 즉 정신의 손’에 축복을 주시니, ‘정신’이 불구자가 되면 하늘의 축복을 못 받는다.

18. 정신의 손, 마음의 손이 깨끗해야 전능자께서 축복을 주신다. 정신의 손, 마음의 손이 더러우면 안 주신다.

19. 정신과 마음과 생각이 깨끗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담겨져 있다. 그것을 열어보는 자기 자신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안다.

20. 마음 그릇이 깨끗해야 주시고, 기도하여 구해야 주신다.

21. 방송국에서 전파로 뉴스를 내 보내도 고장 나지 않은 TV에서만 뉴스를

볼 수 있듯이, 성자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마음과 정신이 온전한 자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깨달아진다.

22. 사람끼리 가까운 거리에서 말하면 그냥 귀로 들을 수 있지만, 수백 리 멀리 떨어진 곳에서 대화하려면 전파를 받는 기계, 곧 핸드폰을 통해서 말을 주고받는다.

23. 영의 세계의 것은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영파로 정신 세계인 뇌를 통해서 보낸다. 고로 항상 뇌, 곧 마음과 정신으로 받아야 된다. 빛으로 150억 년 걸려 갈 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영파로 정신 세계인 뇌를 통해서 할 말을 보내면, 영도 육도 받는다.

24. 빛보다 수백만 배 빠른 것이 정신파, 영파다. 하늘 천국에서 지상까지의 거리는 빛으로 150억 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영파로는 하늘 천국에서 말하면 지상에 동시에 들린다.

25. 영파로 보내면, 지구에서 하는 말이나 천국에서 하는 말이나 동시에 들린다. 고로 성자 주님이 어디에서 말하는지 모른다.

26. 스마트폰으로 말하면 전화를 건 사람이 옆에 가까이 있으나, 수백 리 떨어져 있으나 동시에 말이 들리고 화면이 보인다. 영의 세계도 그러하다.

27. 영의 눈을 뜨면, 거리와 상관없이 어디서나 영의 세계가 보인다.

28. 정신과 영으로 통하면, 성자 주님께서 천국에 계시든지, 낙원에 계시든지, 땅에 계시든지 동시에 보고 느끼고 통한다.

29. 인간은 기구를 만들어 그 기구를 발전시키며 사용하고, 하나님은 이미 창조한 인간의 뇌, 곧 정신 기구를 발전시키며 사용하신다.

30.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때인 수백만 년 전부터 인간의 뇌를 사용하셨다.

31. 스마트폰은 인간의 정신에 비하면 장난감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정신은 땅에서 천국까지 통하게 하는 기구다.

32. 영 스마트폰은 육 스마트폰 같지 않다. 육 스마트폰은 상대와 통하기만 하는데, 영 스마트폰은 혼자 제자리에서 태양도 달도 꿰뚫어 본다.

33. 하나님은 꿰뚫어 보신다. 즉 지구를 보실 때 남극에서 북극까지 속을 다 꿰뚫어 보신다. 인간의 속도 다 꿰뚫어 보신다.

34. 어떤 것은 자기 정신을 통해서 하지 않고, 자기 영이 영계에 가서 직접 보고 오기도 한다.

35. 한계 이상의 것은 하나님과 성자 주님이 허락하셔야 볼 수 있고, 기본적인 것은 자기 실력껏 볼 수 있다.

36. 하나님은 영의 세계를 질서 있게 통솔하신다. 고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얻게 된다.